

ENF, 반도체 화학제품 아산공장 건설

충청남도와 제2공장 건설 MOU 체결 ... LCD 프로세싱 케미컬 생산

정밀화학제품 생산기업인 ENF Technology가 충남 아산에 제2공장을 건설한다.

충청남도과 ENF Technology는 8월3일 오전 9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2000만달러이상(FDI 800만달러) 투자에 관한 MOU(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및 LCD 생산라인에 필수적인 프로세싱 케미컬 생산기업인 ENF Technology의 이강국 사장은 “투자를 통해 울산의 제1공장에 이어 제2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2006년 이후 매출액 평균 증가율 75%, 직간접 고용효과 1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아산 부근 8400평에 1차로 약 800만달러를 투자해 신규 R&D 센터 및 생산라인을 2007년말 준공 예정이며, 2008년 1월 이후에 반도체용 감광제 원료, 현상액 및 Color Paste 등 핵심 프로세싱 케미컬을 본격적으로 생산해 국내 반도체 및 LCD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반도체 및 LCD 제조기업에도 수출할 예정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ENF Technology의 유치는 △1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 창출 △5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 △2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 충남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구현한 가시적 성과로서 향후 외국기업의 충남투자에 불을 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NF Technology는 국내기업인 한국알콜산업(70%) 등과 영국 리캠(30%)이 합작한 정밀화학제품 생산기업으로 2000년 5월1일 설립됐다.

<화학저널 2006/08/06>